지역 메아리

정읍시, 내달 6일부터 사업체 일제조사 실시

정읍시가 2018 전국 사업체 일제조사와 관련, 내달 6일부터 정읍시 소재 사업체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3월 7일까지 실시되며, 정읍시 소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소 1만 423개소이다.

산업 전반에 대한 지역별 분포와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는 모두 14개 항목에 걸쳐 실시된다. ▲사업체명 ▲대표자명 ▲대표자 성별 ▲대표자 연령 ▲소재지 ▲창설 년월 ▲조직 형태 ▲사업체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이다. 여기에 전북도 특성 항목으로 '39세 이하 종사자 수'가 추가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프로그램 다양화 추진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원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강력·보복범죄의 우려가 있거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숙소시설과 협약을 맺어 상시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어 2차 범죄피해 예방은 물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2차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신고자나 범죄 피해자 등 범죄위협으로 불안감을 느껴 신변보호를 신청하면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관계기관을 적극 연계시켜 심리지원등을 통해 피해자의 빠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해나 폭행 사건 발생 시에는 가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경제적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산림조합 13년 연속 흑자

부안군산림조합(조합장 오세준)정기총회가 김종규 군수를 비롯하여 김종회 국회의원, 산림중앙회 전북지역 본부 정규순 본부장, 조합 임직원 및 대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부안군 산림조합은 2015년 5억 5천만원, 2016년 6억 8천만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2017년 6억 7천만 원의 흑자를 내어 1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대성과를 올렸다.

오세준 조합장은 인사말에서 2018년도는 부안군 산림조합의 재도약의 해로 설정하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최고 자연생태환경도시로 '우뚝'

고창군, 한국 소비자평 최고 브랜드 대상 '생태도시 부문' 대상 수상

29일 서울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소비자평가위원회가 후원해 열렸다.

이 상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서비스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산업경제, 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주민들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선정·시상하고 있다.

고창군의 이번 수상은 지난해 '생물다양성 증진' 대통령기관 표창에 이어 생태부문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고, 친환경생태도시로의 주민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인의 본향, 고창'은 대한민국 최초로 유네스코로부터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높은 위상 속에 지난해 전라북도내 최초로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 생태자연 환경의 우수성을 확인했다.

군은 생물권보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발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를 지난해 준공해 교육실과 회의실, 전시실, 홍보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운곡습지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48억을 들여, 환경부로부터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으로 선정된 아산면 용계마을과 운곡저수지 일원에 숲 전망대, 생태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한다.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사업에 90억을 투자해 친환경주차장 조성, 습지방문자센터 신축 등 생태습지를 복원하고,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사업에 40억을 투자해 수생식물원·생태학습장 등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생태교육학습장으로 활용하게 된다.

군은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73억을 투자해 2024년까지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을 중심으로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고, 동림·노동저수지에 40억원을 투자해 국가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해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자연생태관광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19년까지 60억을 투자해 친환경 숙박시설 에코촌 조성사업과 38억을 투자하여 2020년 완공 예정인 생물자원보전시설 자연생태원을 비롯해 인천강 기수역 복원사업에 90억을 투자해 관광객 편의시설과 생태휴식 공간 조성과 함께 생물다양성 증진과 복원사업도 추진한다.

시상식에 참석한 이길수 고창군 부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명품 생태도시로 조성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 매력 넘치는 한국인의 본향 고창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 강산명주 이영식 회장

나누미근농장학금 1000만원 쾌척

부안 강산명주 이영식 회장이 29일 부안군청을 찾아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금 1000만 원을 쾌척, 8년 간 장학금을 기탁, 미래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길과 꿈을 잃지 않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영식 회장은 부안 강산명주 등 4개 기업을 운영하면서 100여 명을 고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부인과 함께 전주대학교에 동시 입학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경영인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이영식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kg들이 쌀 250포를 함께 기부했으며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장학기금 기탁은 8년째 이어져 오면서 총 금액이 1억 1000여만에 이른다.

이영식 회장은 "부안의 아이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꿈을 잃지 않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안만의 장학사업으로 뜻있게 쓰이길 바란다"고 기탁배경을 설명했다.

김종규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이사장은 "수년간 잊지 않고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그 따뜻한 마음과 부안사랑은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며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전국 최고의 장학재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우수 선정

정읍시, 규제 합리성 · 행정 시스템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평가 받아

정읍시가 2016에 이어 2017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우수시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도지사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3000만원을 받는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2017년 전국 규제지도 평가 조사'에서 기업 체감도 부문 A등급을 받아 도내 2위를 차지한 결과이다.

관련해 도는 규제지도 평가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14개 전북도 내 시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에 기여해온 시군을 선정, 시상해오고 있다.

시에 따르면 기업 체감도는 규제 합리성과 행정 시스템, 행정 행태, 공무원 태도, 규제 개선 의지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다. 시는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에도 기업 체감도에서 도 내 1위, 경제 활동 친화성 분야에서 S등급을 받아 도 내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016년에 이어 연달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우수시로 선정된 것은 과감한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공무원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18일 중소기업 대상 지원 시책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1기업 1담당 기업체 고충 처리제 운영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지도 · 점검

정읍시보건소가 자동심장충격기 지도·점검에 나섰다.

설 연휴 기간 심정지 환자 발생 시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달 25일부터 시작된 지도·점검은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진다.

공공의료기관 44개소와 다중이용시설 36개소, 공동주택 11개소 등에 설치된 총 91개소 자동심장충격기가 대상이다.

이 기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응급장비 관리자 사용법 교육과 함께 월 1회 점검시항 시스템(중앙응급의료센터 인트라넷)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심장이 멎었을 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존율을 90%까지 높일 수 있다"며 "따라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드론 시범 투입 AI 공중방제 실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철새도래지인 동림저수지에 무인항공 장치인 '드론'을 시범 투입하여 공중방제를 실시했다.

군은 29일 총 5대의 드론을 투입해 2시간 가량 소독차량의 살포범위가 닿지 않는 곳을 위주로 공중에서 집중 방제를 실시했다.

드론방제는 소음과 분진발생이 적고 인력과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지역까지 방제가 가능하여 사각지대 없이 보다 빈틈없는 AI(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제에 나서는 드론의 기체는 15kg으로 대당 10ℓ의 소독약제를 탑재해 1회 3Ha의 소독이 가능하다.

투입된 드론은 배터리와 약제부족 시에는 자동복귀가 가능한 기종으로 배터리 충전완료 후 메모리가 기억된 지점으로 이동하여 다시 자동비행을 하는 지능형 복귀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한편 고창군은 철저한 AI 차단방역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거점소독시설(3개소)과 이동통제초소(4개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철새도래지인 동림저수지에 개체수가 정점을 찍음에 따라 탐조객들의 방문을 대비하여 주말에는 출입통제초소 5개소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군부대 제독차량, 광역방제기, 공동방제 차량 등을 총동원 하여 동림저수지 주변 소독을 매일 실시하면서 AI 차단 방역을 위한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이번 드론 방제를 통하여 저수지와 습지 등 차량과 인력의 접근이 쉽지 않은 방역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드론을 활용한 공중방제가 활용도와 방역효과가 클 경우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AI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